

社訓
人和協同
創意躍進
責任完遂

世界속의 南海人像

超一流에의 挑戰者
 無限競爭의 勝利者
 自己分野의 一人者
 安全第一의 實踐人
 環境保全의 파수꾼

사보

南海化學

1996 / 5

목 차

남해인에게 주는 글	유아기에 인격의 틀이 결정된다 · 이용분	42
화합의 생활화 · 유세희	고전강좌 / 족보이야기 · 이현구	46
이달의 테마 · 창조적인 생활	생각해 봅시다 · 편집실	48
창조의 참 의미 · 이남호	시사해설 · 2002년 월드컵	
이달의 캠페인 · 칭찬하는 풍토	① 지구촌을 달구는 축제, 월드컵 · 오도광	49
① 칭찬과 기 · 김희중	② 월드컵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 · 신문선	52
② 칭찬의 미학 · 유석춘	남해주부 생활수기 현상모집	56
경영정보 · 본사 및 공장의 전산시스템 현황	명사감상 / 당신의 꽃은 어떤 꽃인가 · 박제천	58
남해화학의 전산시스템 어디까지 와있나 · 이승희	이 한 권의 책 / 자아 발견을 위한 젊은 날의 송가 · 홍신선	61
인터뷰 · 부서장이 추천하는 「우리 부서의 파수꾼 ⑥」	여류 에세이 / 매듭과 눈물 · 이남희	64
묵묵히 실천하는 남해인 실험과 김윤중 계장 · 이상준	이 달의 폰트 / 작은 행복은 작지 않다 · 임영태	67
탐방취재 · 명예사원을 찾아		
수입개방이 두렵지 않은 명예사원 박봉하씨 · 김중연		20
탐방취재	남해 가족석	
해남 토말(土末)기행 · 김형렬	남해화학 사택 부인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 유럽 배낭 여행 가이드	자그마하던 벚나무가 거목이 되고 · 나영찬	70
자, 떠나자. 배낭 하나 달랑 메고! · 김성호	나의 신혼일기 / 사고 후에 깨달은 일들 · 김옥주	72
신입사원 코너 / 나의 선택 · 나의 남해화학	여직원 코너	
① 선택과 책임 · 정낙용	● 큰언니 · 조현정	74
② 가장 소중한 경험 · 최우혁	● 이전 어른이고 싶다 · 최미애	76
③ 정상에서 만납니다 · 이주열	웃으며 삽시다	78
④ 나의 목표는 무한대 · 반대현	함께 풀어봅시다	79
주제가 있는 글밭 · 우정에 대하여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80
참다운 사랑으로 빛는 우정 · 이주행	UREA 운동	82
자녀교육 · 유아의 기본 생활습관 지도		



칭찬의 미학



유석춘

연세대 교수 · 사회학

「일본은 공수 균형을 갖춘데다 한국보다 짜임새에서도 앞서며 마에조노를 주축으로 하는 공격 파워는 수준 이상」

「2월 18일 끝난 올림픽팀 5개국 초청전(미국)에서 3무 1패의 무기력한 플레이에다 과제인 골 결정력 부족, 그리고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 비쇼베츠의 자신감 부족……」

3월 27일, 역사적인 한일전을 치르기까지 일본과 한국의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전력 평가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일본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3월 27일 밤과 28일 새벽, 한국 대표팀은 2:1로 일본에 이겨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승리를 온 국민에게 안겨줬다.

비쇼베츠 감독이나 조병득 코치, 우승의 주역이 된 선수들 모두 한결같이 “국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힘입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 말은 우승의 감격을 전하는 한마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 날 밤 한국 축구팀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에 대한 분노와 2002년 월드컵 한국 유치에의 희망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눈에 불을 켜고, 기를 써서 그 일을 해낸 것이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다. 피그말리온은 신화에 나오는 왕으로서 미녀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다. 비록 조각상이지만 그 아름다운 여인

을 그가 너무나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조각상은 마침내 사람이 되고 말았다. 「피그말리온 효과」란 이 신화가 암시하듯이 「기대한 만큼 성취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은 마치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든 것처럼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 혼을 불어 넣어 마침내 우리가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게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배가 후배에게, 동료가 동료에게, 친구와 애인,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는 피그말리온과 같은 기대와 바람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흔히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친분이 없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몰이해하며,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친하다는 이유로 차침함부로 대하거나 장난끼 어린 말투로 깎아내리기가 쉽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점심시간이나 술자리 등 동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나오는 말은 으레 남 깎아내리기가 주종을 이룬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지사니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누구건 흠이 없으란 법이 없다.

상사건 동료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니 남의 결점을 안주삼아 분풀이를

하게 되고, 또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같이 있는 사람의 흉허물을 들추어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사람을 허탈하게 한다.

그러한 풍토는 지난 총선문화에서도 정도가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았다.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이 장점이며, 무엇을 잘 할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을 상대방 후보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야단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무언가 비판하고 꼬집어내야만 자신이 우월하게 보이고 아울러 자신의 결점이 정당화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다. 요컨대 열등감이다.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기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남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소 냉담한 구석은 있지만 업무추진력이 뛰어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런 특성들을 살려주는 위치에 갖다놓고 그에게 맘껏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고, 반면 우유부단하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작은 일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런 면에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각자의 특성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제대로 발휘된다면 그걸로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어떤 사람이 갖추지 못한 성향이나 자질, 성격상의 어떤 면을 반복해서 부각시키고 그

것으로 그 사람을 질책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까지도 사장시켜버릴 우를 범하게 된다.

그렇다고 경우에 맞는 조리있는 칭찬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람에게 대한 칭찬은 자칫 잘못하면 입에 발린 소리로 끝나거나 주위 사람들의 시샘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사가 부하직원들 중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내놓고 칭찬을 한다면 그건 당사자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상사에 대한 칭찬은 아부로 비취질 소지도 있다.

칭찬은 되도록이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리고 수직적 상하관계보다는 수평적인 동료관계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신의 좋은 면을 적극적으로 봐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다못해 전화 한 통이라도 성의껏 받아주게 된다. 또 그 작은 친절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 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신을 좋게 보고 인정해주고 기대하는 사람을 저버릴 만큼 무모하고 비정한 사람은 많지 않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타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칭찬과 기대, 희망을 가져보자. 우리 모두 한 번 피그말리온이 되보는 것이다.

나의 인정과 기대를 받은 사람은 어느새 '아름다운 사람' 이 되어 내게로 올 것이다